

언론 사람

2018
vol.211

01

04

인터뷰
대법관 조재연

07

언론중재위원회 NOW
가짜뉴스에 대한 최선의 해법찾기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LA 도심의 'The Broad'

상선

야수





산토리니 성당의 무지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섬, 죽기 전에 가 봐야 한다는 여행지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동화 같은 섬, 산토리니(Santorini)! 바닷바람조차 감미롭다.
거친 파도 헤치며 도착한 항구 위로 한눈에 펼쳐진 절벽마을.
수 백 개의 하얀 집들이 파란 지붕을 머리에 쓰고, 웅기종기 매달려 있다.

9백여 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간 이아마을. 마을 가운데에서 만난, 작고 아담한 성당.
조심스레 문을 열어본다. 아무도 없는 고즈넉한 성소.
한낮의 태양 빛이 스테인드글라스를 뚫고 나와 무지갯빛 그림을 성당바닥에 그려놓았다.
현란한 색깔들이 숨 막힐 듯 아름답다. 아! 이곳은 산토리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에게해만큼 쉽게 사람의 마음을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는 것은 없으리라.”

-니코스 카잔차키스 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CONTENTS

2018 January
Vol.211



언론+



사람+

02 Close-Up
산토리니 성당의 무지개

04 인터뷰
대법관 조재연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보여주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

07 언론중재위원회 NOW
가짜뉴스에 대한 최선의 해법 찾기

08 언론법 이모저모
어떻게 자살을 보도할 것인가

09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

10 세상읽기
Small, but Certain

11 푸드텔링
세계의 새해 음식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LA 도심의 'The Broad'

15 따뜻한 아이디어
따뜻한 옷을 가져다주는
착한 옷걸이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조남태 | 발행일 2018년 1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정의로 향하는 법처럼

1980년, 그 엄혹했던 시절 오로지 선과 정의를 먹고 사는 판사가 되겠다던 스물넷의 청년 법관은 긴 시간이 흐른 지금 대법관이 되어 돌아왔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정의로 향하는 법처럼 그저 순리를 따르는 삶이었다고 한다. 이런 그를 오늘의 자리에 오르게 한 비결은 무엇일까?



Q |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과 같은 판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 상선약수와 같은 판결을 하겠다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제정하거나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法)이라는 글자가 삼수 변(巛)과 갈 거(去) 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법은 물과 같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역지가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동의는 어렵지만,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당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같이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많은 법을 만들다 보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정당성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겸손함을 지녔다고 얘기합니다. 법을 적용하여 시시비비를 가림에 있어 물의 겸손함을 닮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판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 |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시던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A | 제 스스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국민의 기대와 그 기대를 반영한 제청·임명권자의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통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보고, 경험한 만큼 세상을 이해하기 마련이고요. 판사로 11년, 변호사로 24년을 지냈으니 변호사로 더 오랜 기간 생활해 온 셈입니다. 즉 법관으로 20~30년간 일변도를 걸어오신 분이 아닌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그간 다양한 경험을 해왔으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제를 봐주길 바

라는 국민의 기대와 그 기대를 수용한 제청·임명권자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사회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길 바라는 기대에 부응해야겠죠.

\\ Q | 대법관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대법관님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 제 정치적 성향을 진보 또는 보수라고 나누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편향된 시각에서 자신의 입장을 도식화하여 사건에 접근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변호사든 법관이든 자신이 맡은 사건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후생제도 관련 사건이라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빈곤계층이나 약자를 좀 더 배려하는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나라의 안위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답을 모색해야겠죠. 자신의 시각이 아닌, 사안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 Q | 대법관님의 성장 스토리에 많은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법조계 내에서 흔히 많은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로 인해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점과 인간적인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 성숙해지고자 노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해주시는 듯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야간대학을 다니며 공부한 것이 물론 쉽지 않았지만, 사실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마다 저는 저 자신과 대화합니다. ‘너 힘드니?’라고 묻죠. 그리고 대답합니다. ‘뭐 이 정도 일에 낙담하고 그래?’ ‘아무 일도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 낫잖아’라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책을 통해 앞서간 사람들과 대화하고, 책 속의 주인공을 보며 어려움을 극복한 지혜를 배웁니다. 사기, 노자, 장자 그리고 법가인 한비자의 책도 좋아합니다.

\\ Q | 사법고시 합격 이후, <선데이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오로지 선과 정의를 먹고사는 판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짐처럼 1980년대 엄혹했던 시절, 판사로서 소신 있는 판결을 여럿 내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요?

A | 젊음의 패기와 순수한 마음이 담긴 다짐이었습니다. 솔직히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랬노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배운 대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작은 밑일이 되겠다는 초심, 그리고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Q | 2014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언론 보도 관련 재판이나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기본원칙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받아야 하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해결 그 자체보다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때 언론조정·중재제도는 그 소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당사자는 물론 중재위원 모두가 역사사지의 자세로 조정·중재에 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보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든 생각해보고,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언론사의 입장에서든 생각해봐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양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재위원은 언론과 피해자 개인 간에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을 더더욱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론사와 피해자가 운데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Q | 끝으로, 2018년 새해를 맞아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A | 우리는 과거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급기야 나라를 잃기까지 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설움과 고초를 역사적으로 겪어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국력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력이 물리적인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력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의 힘, 즉 개개인의 인간적인 향상과 성숙함을 통해 한층 더 강한 국력을 이뤄야 합니다. 개인의 품격이 국가의 품격일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문화·정신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내는 축복 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1974 한국은행 입행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 2011~2017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 2014~2017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2017~ 대법관

보여주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

김양순 |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문제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와중에 일어난 중국 경호업체의 한국 기자 폭행이 12월 언론보도 주요 이슈다. 예전 같으면 애국주의나 한민족 정서가 묻쳐 중국에 대한 반감이 주를 이뤘을 법도 한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을 것이라는 비하와 동시에 문제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성과를 평가절하하고 보도하지 않았던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문제라는 공격이다. 그간 한국 언론이 중요 이슈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무보도, 틀짜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만 윤색해 어젠다를 세팅해왔다는 비판이 사실이긴 하다.

그런데 한국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방중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적게 보도했을까? 정말로 '훈방 프레임' 등으로 성과를 축소하고 한국 기자 폭행 이슈를 키웠는지 의문이 든다. 일부 네티즌은 “기자 폭행피해 보도 전에는 대통령이 중국에 간 줄도 몰랐다”고 말한다.

최근 한 달간 전국 일간지와 방송사의 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문 대통령의 방중 보도만을 뽑아보면 기사 공급량은 12월 12일부터 1, 2위를 다룬다(한국언론재단의 빅인즈 시스템 활용, 조선·중앙·동아 제외 전국 일간지 일(日) 5천여 건 분석). 한중 사드 논의를 비롯한 정상회담 내용, 한반도 4대 원칙 합의, 총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방중 성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해당 이슈 기사는 88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 경호원이 한국 기자를 폭행한 기사는 366건이었다.

한 달간 기사 공급량은 최고였는데 뉴스 소비자들은 국가수반의 방중을

몰랐다니 이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뉴스 소비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로, 카카오톡, 혹은 페이스북으로 내 손 안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고 싶은, 혹은 포털이 꽃은 뉴스를 소비한다. 실제로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를 뽑아보면, 12월 14일 대통령 수행 기자단이 집단폭행당하는 영상이 포털에 뜨기 전까지 대통령의 방중 기사는 많이 본 뉴스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폭행 기사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총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나 방중 외교 성과 기사들이 이어졌음에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지는 못했다.

지난 한 달간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데이터와 빅인즈 일별 주요 이슈를 비교해보면 대통령의 방중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줄도 몰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ICBM급인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언론은 지난 4주간 보도됐던 어떤 이슈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473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이후 사흘 동안 언론이 770건의 기사를 쏟아냈음에도,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에서 북한 미사일 기사는 20위 안에도 오르지 못했다. 기사가 많아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꽃지 않으면, 혹은 (사용자들이) 검색해 굳이 찾지 않으면 없는 기사나 마찬가지다.

매일 언론사들이 생산한 기사 수천 개를 분석한 빅인즈와 그 가운데 일부를 플랫폼에 배열한 뒤 소비된 기사를 분석하는 포털. 양 측이 내놓는 데이터는 사뭇 다르다. 나는 오늘, 어떤 뉴스를 소비했든가.

가짜뉴스에 대한 최선의 해법 찾기

2017년 언론법 영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가짜뉴스'였다.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학회와 관계기관 주최로 술하게 개최되었다. 가짜뉴스 관련 사회적 논의는 법적 규제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과 자율규제·팩트체크 등과 같은 사회적 장치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 두 갈래로 흘러왔다. 이 중에서 무엇이 최선의 해법일까?

지난 12월 7일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해답을 고민해보았다.



황용석 |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가짜뉴스에 대응할 목적으로 여러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언론과 사회, 학술기관의 팩트체크 노력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소통 구조 마련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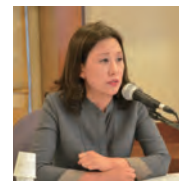
정세훈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제로 가짜뉴스의 접근과 전파를 감소시키는지 실험해본 결과,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제보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광고 제한을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수익을 차단한 다든지, 가짜뉴스를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 구현 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가짜뉴스는 정치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규제 논의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유독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불균형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윤성옥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가짜뉴스의 영역이 광범위한데 규제를 해야 하는 영역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상업적 홍보에서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물, 유머나 풍자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영역에서조차 가짜뉴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최진웅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유통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가장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워 국내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광엽 | YTN 경제부장

우리 법에는 이미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 가짜뉴스에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 규정이 여럿 존재하며 따라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다.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체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리터러시 강화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자살을 보도할 것인가

김주연 | 변호사



얼마 전 인기 그룹 싸이니의 멤버 종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자살한 장소며, 자살한 방법이며, 상주가 누구인지, 조문은 누가 다녀갔는지 등이 시시각각 보도되었다. 조문객으로 보도되지 않은 어떤 연예인은 “왜 조문을 가지 않았냐?”라는 네티즌의 악플 메시지를 받았다고 또 보도가 됐다.

죽음이 가진 무게에 비해 이를 다루는 정보의 깊이가 얇고, 그 내용이 시시콜콜해서, 오히려 그의 죽음이 언론사의 장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몰라도 무방한 정보들이거나,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정보들이기도 했다. 유명인이 자살하면 이를 모방하는 자살이 증가한다는 베르테르 효과는 이미 증명된 바다. 실제로 종현의 해의 팬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모방 자살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자살 보도를 아예 금하는 편이 가장 강력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에 자살 예방을 위하여 보도 가이드라인 등이 만들어졌는데, 보건복지부는 자살의 수단,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화하고, 자살에 대한 미화를 피하며, 자살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배포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 장소나 자살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로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다.

자살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외국도 거의 비슷하지만, 자살의 원인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호주 등 외국은 기본적으로 자살은 질병이므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사를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는 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살의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 낫다고 보는 듯하다.

자살 보도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 보면, 자살 원인

을 보도하지 않으면 자살은 단지 개인의 선택 범주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잠재적 자살 가능자들에게 이러한 자살 보도 내용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 자살이 정신 질환에서 비롯되는 점을 밝히면, 독자들은 자살의 전조 증상으로서 정신 질환을 보게 되고, 자살을 피치 못하게 닥친 사고가 아니라, 치료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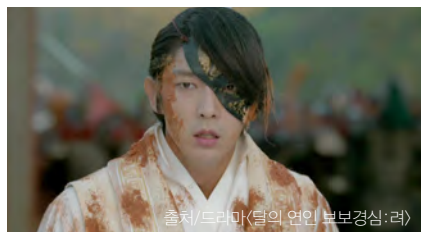
2016년 화제작,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는 미국 콜럼바인 총격사건 가해자의 어머니 수 클리블드가 총격사건의 참상이 자신이 미처 아들의 정신질환을 알아채지 못한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절절히 써 내려간 책이다. 수 클리블드는 자신의 아들이 자살하고 싶었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타인을 살해함으로써 비로소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이러한 반성적 분석을 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각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진심으로 바랐다.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아들의 민낯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후비는 일이었을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가의 아들에 대한 감정적인 용서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러한 접근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파파게노 효과’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파파게노가 연인을 잃고 자살하려 하는데 요정들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 그가 자살 시도를 멈추고 연인을 다시 찾은 줄거리에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를 갖는 현상을 일컫는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질환, 이에 대한 자살예방 전문가의 인터뷰, 예방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정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명이나 홈페이지 등이 기사로 전달되면 자살률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의 자살이 언론사의 잘못된 자살 보도 관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반성 및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

유선주 | 드라마평론가

사극을 보다 보면 백성 역의 엑스트라들에게 시선이 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일사불란하게 만세를 외치는 장면에서는 저 중에 딱 맞는 사람 하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괜한 트집에는 주인공이 아닌, 이름 없이 백성으로 불리는 그들과 나를 더 가깝게 두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극 속 백성은 폭군이나 탐관오리에게 핍박받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많은데요. 뜻밖에 또 왕족을 외모로 핍박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SBS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의 고려 백성들은 얼굴의 흉터를 가면으로 가리고 살아온 4황자 왕소(이준기)가 기우제에 나타나자 진흙을 던지고 흉물 취급을 합니다. 가면을 벗은 왕소가 화장으로 흉터를 완벽하게 커버한 얼굴을 드러내자, 백성들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옹의 아들'이라고 칭송하죠. 극 중 '아름다운 외모를 제일로 여기는 고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왕족까지 평가대상으로 삼은 셈입니다. 판타지 사극의 극적 장치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신분제를 벗어난 기준으로 움직이는 백성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실제 고려사를 보면 원이 고려를 간섭하던 시절, 제주민들이 탐욕스런 관리를 조사하고 탄핵하지 않으면 원나라에 항의하



겠으며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민란을 일으킨 제주민들이 청렴한 관리를 지목해, 그를 수령으로 보내주면 무장을 풀겠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극 속에서 어리석고 수동적이었던 백성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중앙정부에 관철시키는 지방민들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조선시대 사극으로 넘어오면 의적이 주인공이 되어 백성의 비중이 높아지지만, 왕조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에 비하면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MBC <의적: 백성을 훔친 도둑>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다뤘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인물은 도적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은 '호민론'을 통해 체제에 안주하는 백성을 향민, 착취당하며 불평하는 백성을 원민, 생업에 종사하며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지만 정세를 살피다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들고일어나는 이들을 호민으로 분류했습니다. 혁명의 구심점이 되는 호민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본 것인데요. 백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은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 10년간, 조선시대 배경의 사극들이 통치자의 자질을 논하면서 현실정치를 은유하고, 이를 위해 백성을 극에 끌어들이는 예가 많습

니다. KBS <대왕세종>, SBS <뿌리깊은 나무>가 그렇고, 또 민본주의 개혁가를 중심에 둔 KBS <정도전> 역시 백성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잦은 드라마였는데요. 이와 반대로 현대극에서는 군주제의 절대 권력을 열망하는 인물이 백성을 입에 올리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경수 작가의 SBS <추적자 THE CHASER>에서는 좇돌을 든 노동자, 일손을 놓고 투표하러 가는 유권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적인 시민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한오그룹의 서 회장(박근형)은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우에 알겠노? 어제와 오늘 마음이 다른 이 나라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혈육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서 회장의 낡은 세계관이 단어 선택에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한편, <추적자>에서 미용실 티브이를 보다 투표하러 달려가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사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선 머리를 맡며 부동산 정보를 뒤적이는 장면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회 구성원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다른 면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최근 방영한 SBS <의문의 일승>에서는 비리혐의로 조사받는 전 대통령 앞에 모여든 '태극기 부대'를 드라마에 반영했는데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집단, 나와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동시대의 타인들을 통해 군중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군주제 하의 백성이나 민주사회 시민의 속성을 한 가지 틀에 묶어넣는 편의적인 이야기보다 이들이 단일하지 않다고 보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고, 흥미롭습니다.

Small, but Certain

한기봉 |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국민대 초빙교수



격월로 만나는 고교 반창회의 마지막 풍경은 다음 모임 날짜를 잡는 일이다. “3월 며칠이 좋을까?” 총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든다. 안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 호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내 펼친다. “이구, 저 고집불통, 꼭 나이트를 낸다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아날로그 할래?” 그는 친구들의 핀잔에 빙그레 웃는다. “그런데 난 이게 훨씬 편하고 좋은 걸 어떡하냐.” 나도 몇 년 전까진 그랬다. 다이어리 수첩을 잃어버린 후, 컴퓨터와 연동되는 캘린더 앱을 쓰게 됐지만 일주일 단위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수첩에 깨알같이 기록해놓고 한눈에 들여다보아야 왠지安心이 됐다. 그런데 캘린더 앱은 메모 공간이 부족해 성에 안 찬다. 다시 수첩으로 돌아가? 말야? 그게 새해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내가 수십 년간 바꾸지 못한 애용품이 하나 있다. 노트와 연필이다. 일전에 ‘연필을 깎으며’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연필에 칼을 댈다. 사각사각 뽀얀 나뭇결이 드러나며 연필밥이 동그랗게 말린다. 미세한 나무향이 풍겨온다… 드디어 칼날이 연필심을 살짝살짝 버린다. 금속과 흑연의 한 판 대결, 그 떨리는 손맛이 나는 좋다. 너무 힘을 주면 심이 패거나 가늘어진다. 엄지가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칼등을 밀어주어야 연필심은 굵기와 길이가 아름답게 빛난다. 사소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일도 때로는 심오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게 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다.”

나는 물론 모니터에 글을 쓰지만 책상에는 분신 같은 녹색의 파버카스텔 9000 연필 몇 자루와 그때그때 생각을 적어놓는 빨간 몰스킨 다이어리 노트와 지우개가 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모니터와 키보드는 연필과 공책이 주는 그런 여백과 섬세함이 없다. ‘소확행(小確幸)’이란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소비트렌드연구소가 2018년 한국 사회의 첫 번째 트렌드로 꼽은 말이다. ‘작지만 확실한(small, but certain) 행복’이란 뜻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처음 나온 단

어라고 한다. 작년에 가장 자주 언급된 라이프 스타일은 ‘올로(You Only Live Once)’와 ‘휘게(Hygge)’였다. 그 역시 행복에 관련된 것이다. 올로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다. 휘게는 유엔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의 라이프 스타일로 안락한 분위기에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

물질과 기계와 속도를 멀리 하는 ‘작은 행복’ 트렌드는 지구촌 여러 언어에 많다. 적지도 넘치지도 않는 균형적 삶의 방식을 일컫는 스웨덴의 ‘라곰(lagom)’, 그들의 커피 휴식 문화인 ‘피카(fika)’, 집 근처 카페에서 조용하게 보내는 프랑스의 ‘오캄(au calme)’,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국에서 시작된 자연 친화적 공동체 삶 ‘킨포크(kinfolk)’, 독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확산된 ‘단사리(斷捨離, 미니멀 라이프)’….

디지털의 공습에 밀려났던 아날로그의 대반격이 확실하게 시작됐다. 이미 산업적으로도 아날로그는 실지를 되찾고 있다. 손으로 만져지는 인화 사진과 LP판의 르네상스, 전자책의 정체와 종이출판 산업의 확장, 다이얼 판매량의 급증, 다운로드를 대신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 캘리그래피와 컬러링북의 인기, 대형 쇼핑몰의 인파, 라디오와 팟캐스트 애청자, 더 늘어가는 방문판매 마케팅 같은 것이다.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즐기고, 놀고, 대면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연대하는 것들이다. 이제 사람들은 과시보다 가치, 소유보다 경험, 소셜보다 스킨십, 미래보다 지금, 경쟁보다 안정, 회식보다 혼술, 야근보다 나의 저녁, 성공보다 자존감, 패션보다 스타일에 만족하고자 한다. 왜?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내 결론은 진부하더라도 이렇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날로그적 존재라는 것. 0과 1로 대체할 수 없는 게 마음이다.

황금깨피 해가 밝았다. 세상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단하고 시끄럽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한 일은 매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은 이진법이 아니다.

세계의 새해 음식

이용재 | 음식 평론가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우리에게 새해 첫 끼니로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가래떡은 길게 뽑으면 장수를, 얇게 썰면 엽전을 닮아 돈을 상징해 새해 음식으로 선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게다가 한때 귀했던 쌀을 나눠 먹는다는 의미나 흰색과 순수함의 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다. 떡국은 아닐지언정 세계 각 문화권에는 새해 첫날 의미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

스페인에서는 새해의 첫날을 알리는 열두 시의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한 번에 포도를 한 알씩 먹는다. 이러한 풍습은 1909년, 전체 면적의 1/4이 포도밭일 정도로 스페인의 포도 공급을 책임지는 알리칸테(Alicante) 지방에서 남는 포도를 처리하기 위한 공여지책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포르투갈을 비롯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등으로 퍼졌다. 열두 알의 포도는 각각의 달을 상징하므로 맛에 따라 그달의 운수 또한 예상할 수 있다. 달면 운수가 좋은 달, 시면 썩 좋지 않은 달인 것이다. 보통 시계가 열두 번 울릴 때까지 열두 알을 다 먹어야 하는데, 페루에서는 열세 번째 포도알까지 먹는 풍습이 있다.

한편 생선을 통으로 먹는 새해 풍습도 있다. 성스러운 휴일에 육식을 금하는 가톨릭교회의 규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덴마크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대구를, 폴란드나 독일 등에서는 청어를 즐겨 먹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염장 덕분에 오랫동안 저장 및 운반이 가능해 지킬 수 있던 풍습이다. 독일에서는 잉어를 먹고 행운의 상징으로 비늘 몇 점을 지갑 속에 지니고 다닌다. 동양에서도 새해에 생선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음이나 알을 통한 다산 및 풍요로움의 상징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통으로 조리한 생선이, 일본에서는 새우나 청어 알이 새해의 전통 음식이다.

겨울 잎채소와 콩, 두 가지는 돈과 닮아 새해의 전통음식으로 대접받

는다. 케일, 근대, 양배추는 녹색을 띤 넓은 잎사귀가 지폐와 닮아 많이 먹는다. 먹는 방법이 문화권마다 다른데, 덴마크에서는 케일 스튜를 끓여 설탕과 계핏가루를 뿌려 먹고 독일에서는 채 썬 양배추 절임인 '사워크라우트(Sauerkraut)'를 즐긴다. 한편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의 '소울푸드(Soul Food)'에 빠지지 않는 진녹색 잎채소인 '콜라드 그린(Collard Green)'으로 스튜를 끓여 먹는다. 훈제 돼지 족발이나 다리 관절로 우린 국물에 더해 부드러워지도록 푹 끓인다.

채소가 지폐라면 콩은 동전과 닮아 즐겨 먹는다. 렌즈콩은 이탈리아나 독일 등지에서는 돼지고기나 소시지 등과 함께, 브라질에서는 수프를 끓이거나 쌀과 함께 새해의 첫 끼니로 먹는다. 미국 남부에서도 동부콩(black-eyed pea)과 쌀을 끓여 콩밥과 비슷한, '호핑 존(Hopping John)'이라는 음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남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식량 위기를 맞았을 때 동부콩의 발견 덕분에 연명할 수 있어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돼지의 경우 동양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서양에서는 짧은 다리를 단단히 땅에 디디고 앞으로 나아가므로 전진을 상징해 새해 식탁에 오른다. 쿠바,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부드러운 새끼 돼지 통구이를 즐기며, 스웨덴 등지에서는 발을 단단히 땅에 디디는 이미지 때문에 족발을 먹는다.

그밖에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새해 음식으로 만두를 먹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해가 바뀌는 자정 무렵에 빚은 만두를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동전을 넣어 이를 먹는 사람은 재물운이 따른다는 이야기도 함께 즐긴다. 한편 평소에는 즐겨 먹더라도 새해의 식탁에는 울리기를 꺼리는 음식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닷가재인데, 특유의 뒷걸음질이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금류 또한 행운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피하므로 먹지 않는다.



브로드 뮤지엄(The Broad).

LA 도심의 ‘The Broad’

영화의 도시를 ‘미술의 도시’로 바꾼
억만장자의 드림 프로젝트

이영란 | 미술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1980~90년대에 지구촌을 가열차게 누볐던 재벌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세계는 넓고, 아름다운 미술관은 많다”란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들 삶을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멋진 뮤지엄이 도처에 생겨나고 있으니깐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며 신선한 이슈를 생산해내는 미술관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탐방하려 합니다. 직접 가보진 않더라도 특화된 미술관이 어떤 비전 아래,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건 유익할 테니까요. 우선 요즘 미국 LA의 문화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더 브로드’(The Broad)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LA는 영화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요. 세계 영화산업의 본거지이니 대적할 도시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술은 뉴욕에 계속 밀려왔지요.

헌데 최근 들어 LA의 진격이 대단합니다. 그중 가장 확실하게 방점을

찍은 미술관이 지난 2015년 9월 개관한 ‘더 브로드’입니다. 억만장자 일라이 브로드(Eli Broad) 회장이 2000점에 달하는 아트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건축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지은 이 미술관은 개관 2년 만에 160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브로드는 LA 도시에 눈부시게 하얀 외관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흰 비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벌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전면부 중앙에 커다란 눈동자(동근 창)까지 있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이 미술관이 세워진 LA 그랜드 애비뉴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을 비롯해 LA 현대미술관(MOCA) 등 독특한 건축물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건 더 브로드입니다. 백설처럼 하얀 유리섬유 강화콘크리트 신소재로 사선의 반복과 섬세한 굴곡을 추구한 더 브로드의 파사드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처음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주변에 비해 너무 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개발로 엄청난 부(富)를 일군 브로드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대지요. 바로 옆집인 월트디즈니 콘서트홀도 처음엔 ‘구불구불한 비정형 외관이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며 반대여론이 들끓었지만 이제는 LA에서 가장 ‘힙’한 건축물로 꼽히고 있으니깐요. 브로드 회장의 배짱이 통한 걸까요? ‘올 화이트’의 더 브로드는 요즘 ‘유니크하다’는 호평이 줄을 잇는답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설계한 곳은 DS+R



(딜러 스코피디오+렌프로)라는 뉴욕의 건축그룹입니다. DS+R은 뉴욕의 수많은 랜드마크를 디자인했는데 링컨센터의 프레지던츠 다리,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 파크가 대표작입니다. 하이라인 파크는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공원(서울로 7017)으로 만들며 벤치마킹했던 곳이지요. 쓸모없어 방치됐던 공중철로를 너무도 창의적으로 개조해 DS+R의 명성을 높여 놓았습니다.

이쯤에서 미술관을 만든 일라이 브로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부동산재벌인 브로드는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눈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지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이었던 부친은 페인트공이었습니다. 대학시절 아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쓰레기 분쇄기, 여성구두 따위를 팔아 등록금을 조달했습니다. 워낙 명석하고, 끈질겼기에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에디스 로슨과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도 낮에는 회계사, 밤에는 대학 강사로 뛰었는데 1957년 처가로부터 받은 2만 5000달러로 카우프만&브로드 홀(현 KB 홀)이라는 주택업체를 만듭니다. 그리곤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지하실 없는 규격주택'을 지어 싼 값에 분양합니다. 처음 6채가 순식간에 팔려나갔고, 이후 수요가 폭주해 큰돈을 벌었지요.

이어 퇴직연금 전문보험을 선보이며 돈방석에 앉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고, 남보다 한발 먼저 시도했던 그는 오늘날 자산 65억 달러의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미술 전문매체 아트넷의 '세계의 톱 10 컬렉터'에 매년 들 정도로 알아주는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하나 젊은 시절의 브로드는 예술에 감감절벽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안 장식을 위해 갤러리를 드나든 게 시초였답니다. 에디스는 "갤러리에서 100달러짜리 앤디 워홀의 '캠벨수프'를 보고 반했어요. 현대 그걸 샀다간 외출금지령이 내려질 것 같아 꼭 참았죠"라며 50년 전을 회고했습니다. 간간한 회계사였던 남편이 워홀의 팝아트를 신통찮게 여겨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런데 아 이러니하게도 현재 브로드 컬렉션에는 워홀의 캠벨수프 캔 2점을 포함해, '워홀표 팝아트'가 무려 28점에 이릅니다. 브로드가 미술에 눈을 뜬 것은 저명인사의 저택에 초대받고부터입니다. 좋은 작품을 걸어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걸 보고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좋은 차와 집만으론 안된다'

1 월트 디즈니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디즈니 콘서트 홀. 브로드 뮤지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1970년 피카소 판화를 시작으로 마티스, 미로 같은 안전(?)한 작품을 사다가 저평가된 작가의 독특한 작품을 사들이며 컬렉션에 빠져듭니다. 장-미셸 바스키아의 낙서화는 13점이나 수집했는데, 요즘은 수백 억 원을 호가하지만 당시 1천만 원대였다는군요. 신디 셔먼, 채스퍼 존스, 에드 루샤,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도 유명세를 타기 전에 컬렉션했지요. 컬렉션은 금액상으로 총 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브로드는 컬렉션이 쌓이자 LA를 '세계 정상 아트캐피탈'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야심 찬 계획을 세웁니다. LA 최고 요지인 그랜드 애비뉴에, 모두의 입이 '찍' 벌어질 정도로 멋진 미술관을 지어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복안이었지요. 그리곤 연면적 12만 평방피트(3370평)의 브로드 미술관을 탄생시킵니다. 기라성 같은 스타작가들의 작품이 '그득그득'한 뮤지엄을 (무료로) 둘러본 대중들은 찬사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대단한 컬렉션을 몽땅 기부한 부부의 결단에 감격하면서요. 브로드는 "부자로 죽는 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3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고가의 미술품을 대학과 미술관에 빌려주는 등 '통큰 나눔'을 실천 중입니다.



2 LA 카운티미술관 광장에 옛 가로등으로 꾸민 크리스 버든의 설치미술. 저녁이면 시민들이 몰려든다. LACMA **3** LA 도심의 횡단보도. 작가가 참여해 예술적이고 색다르다.

LA에는 브로드 외에도 석유재벌 폴 게티가 비버리파크 언덕에 만든 게티 센터와 게티 빌라가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LA의 심장'으로 불려 온 미술관입니다. 또 9개에 달하는 전시관을 갖춘 LA 카운티미술관(LACMA)은 고

대부터 현대까지 12만 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보유 중입니다. LACMA는 피터 춤토라라는 건축가장에게 의뢰해 대대적인 증축을 시행합니다. 6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해 2023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뮤지엄을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해가 누워눕어지면 LACMA 광장에는 70~80년 된 빈티지 가로등 202개가 불을 밝힙니다. 베네수엘라 작가 크리스 버든의 공공미술 '여반 라이트'로, 낮과는 또 다른 운치가 일품입니다. LA 미술관의 밤은 이렇게 아름답고 축축하게 시작됩니다.



위원동정

12월 6일자로 중재위원 9명이, 12월 15일자로 중재위원 3명이 위촉되었다. 한편 12월 14일자로 서울제6중재부 석인호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충북중재부 김준희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중재위원직을 사퇴하였다.

위촉(12인)

중재부	성명	대표이력	임기
서울제2중재부	전진우	동아일보 논설위원, 논설실장, 대기자	2017. 12. 6. ~ 2020. 12. 5.
	양소영	(현)법무법인 송인 대표변호사	2017. 12. 6. ~ 2020. 12. 5.
서울제5중재부	김보람	(현)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변호사	2017. 12. 6. ~ 2020. 12. 5.
서울제6중재부	김영성	(현)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2017. 12. 6. ~ 2020. 12. 5.
	장윤미	(현)법무법인 원앤원 변호사	2017. 12. 6. ~ 2020. 12. 5.
	장정수	한겨레신문사 편집인 겸 전무	2017. 12. 15. ~ 2020. 12. 14.
서울제8중재부	이광범	(현)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17. 12. 6. ~ 2020. 12. 5.
부산중재부	김은경	(현)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초빙교수	2017. 12. 6. ~ 2020. 12. 5.
대구중재부	유영철	영남일보 편집국장	2017. 12. 6. ~ 2020. 12. 5.
충북중재부	이광형	(현)이광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 12. 6. ~ 2020. 12. 5.
	신국희	(현)신국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 12. 15. ~ 2018. 8. 31.
전북중재부	김선남	(현)원광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2017. 12. 15. ~ 2020. 12. 14.

위원회 뉴스

◆ 권오근 사무총장 취임

양인석 위원장은 12월 27일 권오근 운영본부장을 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권오근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권오근 사무총장은 1991년 위원회에 입사하여 기획팀장, 심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9월부터 사무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왔다.

◆ 사무처 인사·전보(2018년 1월 1일자)

▲황정근 심리본부 전문위원 ▲류석창 교육본부 홍보팀장 ▲김주용 대구사무소장 ▲양재규 대전사무소장 (충북사무소장 겸직) ▲구유희 심리본부 접수상담팀장 ▲최영훈 전북사무소장 ▲장성원 경남사무소장 ▲김진하 심리본부 조사팀

◆ 전북사무소 이전

위원회 전북사무소가 12월 11일 전주 완산구 전주상공회의소 신사옥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호자동3가) 405호

전화번호 063) 288-0010, 0981



따뜻한 아이디어



The Warming hanger

따뜻한 옷을 가져다주는 착한 옷걸이

집 없이 땅 위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나가는 노숙자들,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노숙자들에게는 더욱 잔혹하게 느껴집니다.



한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루마니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과 대피시설로 매년 수 백명의 노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숙자들을 위해 Samusocial이 'The Warming Hanger'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세탁소와 제휴를 맺어 고객



이 찾아갈 세탁물의 옷걸이에 '다음 세탁물을 맡길 때 집에서 입지 않는 헌 옷을 기부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 돈 100만 원 남짓한 예산을 들인 이 캠페인에 두 달도 안되어 250,00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무려 1톤의 헌 옷이 기부되어 수백명의 노숙자들에게 겨울나기용 따뜻한 옷이 전해졌습니다.

간편하지만 호소력 짙은 메시지가 어느새 사람들의 옷장을 뒤적이게 한 것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아이디어,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는 착한 옷걸이 'The Warming hanger'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